



소리 없이 다가온 일본의 의료붕괴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주님의 평화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의미와 의의를 되새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 번 묵상과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작년 9월 이후, 정권교체로 정치적인 혼란 속에 미국의 리먼 쇼크에 따른 경제침체 문제를 매스미디어를 통한 확대보도로 인해 나라전체는 더욱 심한 혼란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4월 1일은 신학기를 맞는 날이며 대학교 졸업생들의 입사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80%의 대졸자(과거 최저)만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국회의 의원제도(중의원·참의원의 2원제)에 따른 참의원 국회의원 선거가 7월 중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올해도 정치적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교체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과거 수년간 매년 지속 되어졌던 (년간 약 2,200억엔) 사회보장 재정의 삭감은 중지되었습니다.

3월 중순에는 국가 예산이 승인되어 졌습니다. 국가

예산 중 사회보장비용은 일반세출 '53조 4,542억엔' 중 '27조 2,686억엔'으로 책정되어 사회보장비용이 세출의 51%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전환으로 국민연금, 의료, 개호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권이 내세웠던 정권공약(manifesto 매니페스토)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기뻐할 정책이지만, 현행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책실행이 향후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의료비의 증가는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매년 1조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후에도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가 예산은 미국의 리먼 쇼크 이후, 저희 일본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근로자의 근로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로 인해 세입 예산의 대부분이 국채에서 보완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의 재정 악화 현상은 '일본 침몰'이라는 화제로 경제학자와 같은 지식계층에서 강력히 주장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일본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성마리아병원과 성마리아그룹은 수 년 간에 걸친 조직개편과 여러 가지 대응방안의 마련, 한국가톨릭의료

가톨릭이념을 바탕으로 한 운영과 성마리아병원을 가톨릭 의료 시설로써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인으로서 가톨릭선교의 기능을 검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운영 되어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한 사회의료법인으로 이행, 공익법인 개혁과 함께 공중위생활동을 시행하는 재단법인을 새롭게 설립, 성마리아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조합설립과 성마리아학원대학의 대학원 설립, 그리고 그룹의 중심인 성마리아병원의 각종 진료기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개정된 진료 보수 개정으로 인한 대폭적인 재무상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병동의 건설 착공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조언과 교류, 협력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진료 보수 개정의 특징은 지역 내 핵심병원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점수화하여 배분되어 졌습니다. 개개인 핵심병원의 진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중증지수, 효율성 지수, 의료기관과의 연계지수, 구급의료지수가 DPC(일본판 DRG)가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사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의사 사무 보조 업무에 대한 가산도 동시에 시행되어 졌습니다. 게다가 4월 1일부터 외래환자,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의 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진료 보수 개정에 따른 지역의 의료기관, 의료기능의 재편성이 강

력하게 추진된 결과입니다. 차후 진료 보수 개정까지는 2년 정도 남아있지만, 그 기간 중 여러 과제를 가지고 도심부의 의료, 지방의 의료, 과소지역의 의료기관, 의료 기능 재편성의 가속화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마리아그룹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을 내밀게 됩니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성마리아그룹은 공익업무를 시행하는 사회의료법인으로서 지역 전체의 보건·의료·복지·교육의 전반적인 지휘를 맡는 사령탑의 역할을 해야 하고, 성마리아병원의 진료기능의 고도화, 임상 교육 기능의 충실, 재무적, 인적 확보가 어려운 일본 가톨릭의료시설협회 관계병원의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할을 시행함과 동시에 가톨릭이념을 바탕으로 한 운영과 성마리아병원을 가톨릭 의료 시설로써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인으로서 가톨릭선교의 기능을 검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2010년 4월 5일

忍び寄る日本の医療崩壊

社会医療法人 雪の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 主の平安

主のご復活祭に際し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今年の復活祭は、現在の世界的な政治、経済、社会の混乱の中での復活祭の意味、意義を、私どもは主イエスキリストとともに新たに黙想、祈りを深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さて、日本の現状でございますが、昨年の9月以降の政権交代に伴う政治的な混乱、またその後のリーマンショックによる経済の低迷、さらにはマスメディアによるこれらの問題の劇場化した報道により、国全体へ閉塞感が蔓延しております。4月1日に新年度の新社卒の入社式が全国で行われましたが、大卒の約80%（過去最低）しか就職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今年も国会の議院制度（衆議院、参議院の2院制）による参議院の国会議員の選挙が7月中旬に実施される関係上、日本は今年も政治上の混乱は避けて通れないと思われま

ところで、今回の政権交代に伴う社会保障関係ですが、過去数年間継続されてきました社会保障財政の毎年の削減（年間約2200億円）は中止されました。3月中旬に国家予算が承認されましたが、国家予算に占める社会保障関係費は一般歳出53兆4542億円に対し27兆2686億円となり社会保障関係費が歳出の

51%と膨れ上がる結果となりました。急激な少子高齢社会の移行に伴う国民の年金、医療、介護に対する不満に対し、新しい政権が打ち出した選挙公約のマニフェストの実行を行ったためであります。直接業務に関係致します私どもにおいては非常に喜ぶべき政策であります。現行医療制度に基づく今後の少子高齢社会での医療費の増加は、単純に計算致しても毎年1兆円の増加を来し、今後この政策が可能であるのか疑問を持たざるを得ません。また、今回の国家予算は、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わが国企業の法人事業税の大幅な低下、また勤労者の給与所得の減少による所得税の低下の結果、歳出の予算を大幅な国債にて補完されております。わが国経済の低迷、少子高齢化による地方の財政悪化現象は、日本沈没の話題として経済学者等の有識者より叫ばれています。

このような現状において、私どもの聖マリア病院また聖マリアグループはこの数年の組織改革、種々の対応、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の皆様方のご支援により順調な運営が可能となっております。新しい制度による社会医療法人への移行、公益法人改革に伴う公衆衛生活動を行う財団法人新たな設立、聖マリア病院を中心とした健康保険組合設立、聖マリア学院大学の大学院設置、またグループの中心であります聖マリア病院の各種診療機能の国よりの指定等により、本年4月より改定されました診療報酬改定による大幅な財務上の確保が可能となり、新病棟の建設着工を行う事ができました。これらの対策の結果は皆様方のご助言、ご交流、ご協力、また神様のお恵みとお力と信じております。

今回の診療報酬の改訂の特徴は、地域の中核病院の強化に重点的に点数が配分されました。個々の中核病院における診療行為における複雑性指数（患者重症度）、効率性指数（平均在院日数の短縮）、カバー率指数（医療機関との連携）、救急医療指数（救急車搬入）がDPC（日本版DRG）加算の対象とされました。また、医師の事務業務負担軽減対策としての医師事務補助業務に対する加算も同時に措置されました。さらには、4月1日より外来患者、入院患者様に対する診療内容を記載した領収書の発行が義務付けられました。診療報酬改定による地域の医療機関、医療機能の再編が強力に推進される結果となりました。次期診療報酬改定までの2年間、種々の課題を抱えつつ都市部における医療、地方における医療、過疎地域における医療機関、医療機能の再編が加速化されると思います。

今後、私どもは激変するグループ内外、聖マリア病院内外の環境の中で船出いたしますが、対応すべき課題が山積しております。公益業務を行う社会医療法人としての地域全体の保健・医療・福祉・教育の司令塔的機能、聖マリア病院の診療機能の高度化、臨床教育機能の充実、財務的、人的確保が困難となった日本カトリック医療施設協会関係病院への支援等果たすべき役割が拡大しております。特に、これらの役割を行う上での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運営、聖マリア病院のカトリックの医療施設としての整備、さらには、法人としてのカトリック宣教の機能を図りつつ、今後の私どもに神様が願われる行動を起こ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つきましては、今後とも皆様方のより一層のご支援、ご協力の程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神に感謝
2010年 4月 5日